



새 인생 주신 부처님 <상>

이묘노 (고양시 탄현동)

오늘은 날이 매우 흐립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씩 뿌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일지화는 비를 맞으며 천정 아버지를 뵈고 오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천정아버지께 한끼 식사를 공양드리고 왔기에 마음이 참으로 흐뭇합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도 살짝 되뇌어 봅니다.

불자가 된 지 여섯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 살아온 세월,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과거이건만 지금 이렇게 마음과 가슴이 따뜻해지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아마도 부처님께 가피력을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화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가난했고 아버지께 좋은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일지화는 효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됐고, 아버지가 사시는 동안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부처님 경도 모르고 부처님 행도 모르고 부처님이란 뜻도 모른 채 살았지만 부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났고 부처님께 범명을 받았습니. 일지화라는 범명을 받았습니다. 이묘노란 이름은 땅 속에 묻고 일지화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일지화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좌절에 빠진 채로 오로지 술에 젖어 가랑잎처럼 오늘도 어제도 10년이란 세월을 울며불며 통곡하며 보냈습니다. 아들을 돌이킬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보내면서 시는 것이 무의미한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을 그리며 울부짖으며 살아온 세월. 부처님 가피력을 입은 전 날은 여성 좋은 일 좀 하다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무슨 일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할 부처님법의 실질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부처님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부처님만 믿겠다고 합니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나에게 맞는 기도를 하면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처님 가피력을 입은 일지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날 되리라 발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처님 부처님 하는지 아시는지요. 전 10년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어느날 군대에서 온 연락은 아들이 죽었다는 '정전벽력'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어머니 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쌍초상을 치르면서 기구한 운명의 일지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가봤지만, 내게 일어나는 장애로 교회도 그만했습니다. 그때 절에 오래 다닌 사촌 율개의 권유로 절에 한두 번 견성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때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다름없었고 식구들도 다 흩어져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원사, 연주암, 봉정암, 범불사, 여러 절을 따라 다닐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술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며 절안에서도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율개언니와 함께 향일암에 갔습니다. 향일암을 다니기 전에는 불교에 대한 것을 아무 것도 몰랐고 사찰 예절도 몰랐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스님의 법문도 뭐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다니기만 했습니다.

향일암에 도착한 그 때도 율개 언니는 대웅전에 들어가서 절을 열심히 했지만, 나는 그 와중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신도들 오고 가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한 거사님께서 여러 불자



어머니 장례 치르다 군대간 아들 죽음 통보받아 가슴에 자식 묻고 울부짖으며 10년간 방황 우연히 찾은 향일암서 발심 '금강경' 읽기 시작

들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

그 때 저는 거사님을 불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촛불은 왜 꺼졌는지 모르겠군요" 하고 말합니다. 함성을 지르며 울부짖은 목소리로 마구 외쳤습니다.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촛불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꺼지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금강경>의 말씀이라 하시더군요. "그럼 <금강경>은 무엇인데요" 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 생의 살아가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한 거사님께서 여러 불자

이 술을 먹고 경을 읽으면 효과가 없어. 술을 먹지 말고 해야지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사님께서 술을 먹고 해도 된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일의 일주일일을 앞두고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가게가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조계사 법사 2년 과정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양로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의정부 선재동자원에 매달 마지막 일요일 도넛 봉사도 갑니다. 도넛을 만들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 선재동자원 부처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종성 스님(임제선원 조실)께서는 '신심(信心)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마음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밝힐 수 없음을 간명적절하게 일러 주시니 밖을 향해 더 이상 뚫을 하거나 해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일에 초탈하시면서 격식을 떠나신 분이 종성 스님입니다. 입전수수(入顯垂手: 중생 구제를 위해 저자에 들어와 세상에 손을 드리우다)하시는 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호 하나은행 차장

보통 화두 참선을 한다며 좌선할 때 호흡과 자세 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저는 그 동안의 가르침이나 책에서 봤던 내용을 다 놓아 버리고 종성 스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믿음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빈 마음자리만이 모든 모순이 사라진 여 여한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시작하니 이전에는 오락가락하던 화두 참구에 훨씬 탄력이 붙었습니다. 참선 공부라 하여 문자적인 알음알

은 알 것 같고, 법상을 물려받으시기까지 법한 스님께서 지난(至難)한 어려움을 함께 받으시고 불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시 수 있게 됨은 우리 불자들의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한 스님은 은사스님과 같이 계시면서 법문 한 구절 따로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가불자 법회 때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곤 했었

마음자리 이해한 뒤 화두풀기 몰두 공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길 열려

이름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자리에 대한 이해는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마음이 허공과 같은 본래 빈 마음자리임을 이해한 다음 화두를 들고 성성적하게 나아감을 제일 먼저 화두 참선의 가르침으로 삼으면, 공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이들이 화두 참선을 하고 싶어 하지만 화두 공부의 난해함과 주위의 현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접하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팔자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 마음을 내면 공부 지도를 받을 길이 생김을 확신합니다. 한 번 부딪쳐 보기를 권합니다.

근래에 종성 스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법한 스님이 시봉할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독 법한 스님께 까랑까랑 하게 대화하던 스님께서 한 순간 법한 스님께 법상(法床)을 물려주시어 몇 년 전부터 법한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신 도넛 봉사도 갑니다. 도넛을 만들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 선재동자원 부처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습니다. 말 그대로 물 길고 나무하고 밭하는 일을 하며 은사스님을 모시고 십 수 년을 서울 도심의 선원에서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성취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시는 스님의 모습, 그 자체로 선가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법한 스님 법문의 요지는 화두 참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살심, 짧은이 들, 직장불자회 등의 법문 청을 받으시고는 불자들의 높이에 맞춰 법문하시는데 화두 참선에 들도록 권하기도 하고 몇 마디 송구(頌句)로 천만 마디 말과 생각을 끊어버리기도 하시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할 때마다 흐트러졌던 신심을 다시 다잡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법한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어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독 법한 스님께 까랑까랑 하게 대화하던 스님께서 한 순간 법한 스님께 법상(法床)을 물려주시어 몇 년 전부터 법한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신 도넛 봉사도 갑니다. 도넛을 만들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 선재동자원 부처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종성 스님께서 제 공부의 큰 대요를 잡아 주셨다면 법한 스님께서 구체적인 공부길을 일러 주시기에 두 분의 고마움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점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ushy@buddhapia.com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요법

신비의 호흡요법

●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나면 손조름과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없다. 다른 호흡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흡의 호흡이 불규칙하면 육체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명상은 한 곳으로 정신집중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깊은 명상에 있어서는 한 곳으로 정신집중된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의 층을 뚫고 초의식의 경지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스아미라미 자음 · 길연 옮김 · 신국판 240쪽 · 값 10,000원

관음역사 시리즈

1 해서 명리진명	8 고전 풍수학 핵심부	16 공룡이 살았던 대백과	24 2C 천문만세력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30,000원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17,000원	4X6배판/정사본/정가 35,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12,000원	25 6월판 명리학 지침서
4X6배판/정사본/정가 16,000원(정사본)	신국판/정사본/정가 10,000원(정사본)	10 관상 수성학 강의	신국판/정사본/정가 15,000원
신국판/정사본/정가 10,000원(정사본)	신국판/정사본/정가 15,000원	11 신도장비결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40,000원
3 재미있는 오합환학으로의 여행	신도장비결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8,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12 사주 입상록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9,000원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3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30,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황계관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4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3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3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9,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4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4X6배판/이신일/천호일/공재/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인을 탐색하는 21세기비 새로운 건강법

해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 상용하기 시작한 해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이케 가쿠, 마에바치 요시카즈 지음 · 사륙판 · 190쪽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우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써, 아우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할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습세기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산트 레드 지음 · 신국판 · 206쪽 · 값 7,000원

16 공룡이 살았던 대백과	24 2C 천문만세력
신국판/양정본/정사본/정가 17,000원	4X6배판/정사본/정사본/정가 35,000원
17 명가총서의 기상학 비결	25 6월판 명리학 지침서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공부	26 적환수 형의(기)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40,000원
20 육축학 핵심비결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3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9,000원
22 적환수 형의(상)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4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5,000원
23 대간과 풍수 지학을 해부하다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20,000원
신국판/정사본/정사본/정가 18,000원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중

특별강의: 사주학, 기문둔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